

동북아 경제협력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구체적 방안

김웅렬

북한 대외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동북아 경제협력에 대한 북한의 입장

동북아 경제협력 역시 대외 경제 관계인 것만큼 북한 정부의 대외 경제 정책에 기초하고 있다.

북한의 대외 경제 정책은

-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는 기초 위에서 대외 경제 관계를 확대 발전시키며,
- 자주, 평화, 친선의 이념에 기초하여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 기술적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며,
- 외국 투자가들이 북한 영역 안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이다.

1)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은 공동 대상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동북아지역에 특이한 체제와 이념을 가지고 문화와 풍습이 서로 다른 것만큼 단순한 무역 거래나 하고 인사 교류만 해서는 실질적인 경제 협력을 신속히 이룩할 수 없다고 본다.

- 북한은 두만강 지역 개발이라는 공동의 대상이 있는 만큼 그 실현을 위한 투자, 자금 농원 등과 같은 적극적인 협력 방식을 취하여 대상을 실현하고 그를 통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확대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 그러므로 북한은 동북아 경제협력의 가장 바람직한 방식은 공동 대상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 방식이라고 본다. 적극적인 협력 방식이라 함은 공동 대상에 대한 직접 단독 투자,

* 이 자료는 ERINA(환경분해경제연구소) 주최로 지난 2월 7일부터 9일까지 일본·나이가타에서 열린 '96 동북아경제회의'에 참석한 북한 대표단의 발언 요지이다.

합영 투자, 쌍부적 및 다무적 협작, 자본 제공, 기술 제공 등과 같은 적극적인 실제적 협조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본다.

- 2) 적극적인 협력을 위한 실현 방도는 현실 조건에 맞게 민간급, 기업들간의 실제적인 협력을 해나가면서 앞으로 조건이 성숙되면 당국간의 협력도 실현해나가는 것이라고 본다.
 - 민간급, 기업들간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적으로 실현해나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두만강지역 개발 대상을 놓고 민간 기업들의 관심과 기대는 높으며 그를 통해 상호 이해와 이익을 증진시키려는 의도가 적지 않다.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 조건도 마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민간, 기업들간의 협력 실현을 기본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 현 상태에서 당국간의 협력을 기본으로 한다면 실제적인 협력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정이다. 민간 경제인들, 경제 기관들간에 경제적 협력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장려해나감으로써, 그를 통하여 전면적 협력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
 - 민간급, 기업들간의 경제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실제적인 공동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본다. 두만강지구 중계수송연합업체라든가, 민간 은행이나 기업들간의 연합 회사같은 것을 조직하고 그의 활동을 해당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특히, 실제적 경제 협력을 실현시키는 데서 민간 경제 단체나 회사들간의 합의를 당국이 인정하지 않거나 그 이행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현 상태에서 중요하다고 본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 1) 공동의 대상인 두만강지역개발을 위한 협조를 통하여 실제적인 경제협력을 실현해나가야 한다.
 - 북한은 두만강 지역의 한 부분인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 협조를 통하여 동북아 나라들과의 실제적인 경제 협력을 실현하려고 한다.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는 정세에 관계없이 임의의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투자하여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특별 경제 지역인 것만큼 이를 창구로 하여 실제적인 경제 협력을 실현해나가려고 한다. 실제적인 협력 실현 가능성이 제일 크고 유리한 중계 수송 분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이미 제기한 두만강지구 중계수송연합업체를 조직하고 그를 통하여 중계 수송, 그와 관련되는 하부 구조 대상들을 개선 확장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시작한 나

진·부산 정기선 봉사를 모체로 하여 그를 일본의 항들과 연계하면서 도로·철도 수송을 결합하여 추진하면 될 것이다.

- 북한은 중계수송연합업체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문제를 임의의 기업·기관들과 토의하여 필요한 조건들을 마련해줄 것이며 그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 한편, 나진·선봉지대를 포함한 두만강 지역 개발 자금을 보장하며 재정 금융 봉사를 진행하며, 나아가서 동북아 지역 경제 협력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게 될 동북아개발은행 창설을 지지하며, 그를 실현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들을 속히 협의하여나갈 것을 주장한다.

2) 동북아 경제협력은 현재 마련되어 있는 시설들을 이용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실현하면서 점차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공동의 대상으로 되고 있는 두만강지역개발을 협력·독려하면서 그를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잘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 이 지역에서 중계 수송·관광을 적극적으로 실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은 이 문제를 실현하기 위한 대책들을 협의해나갈 용의가 있다.

3) 실제 대상 투자를 통해 실현해나가야 한다. 동북아 경제협력에 대하여 많이 논의하여왔지만 실제적인 협력이 잘 안되고 있으며 특히, 공동 대상인 두만강지역개발에서도 일부 쟁부적 협조는 되고 있지만 지역적 경제협력은 안되고 있다.

- 그러므로 공동 대상에서부터 지역적 경제협력을 실질적으로 실현해나가야 할 것이다. 모든 유관측들이 여기서부터 경제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방도를 찾아 투자를 실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실현해나가야 할 것이다.

4) UNDP의 협조 하에 협의위원회, 조정위원회가 창설된 것만큼 이를 통한 협력을 실질적으로 실현해나가야 한다.

- 북한은 협의위원회, 조정위원회 창설이 두만강지역개발, 동북아 지역 경제협력을 실제로로 실현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실제적 협력 문제를 토의 합의할 수 있는 주요 창구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 기구들을 통한 협력이 조속히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